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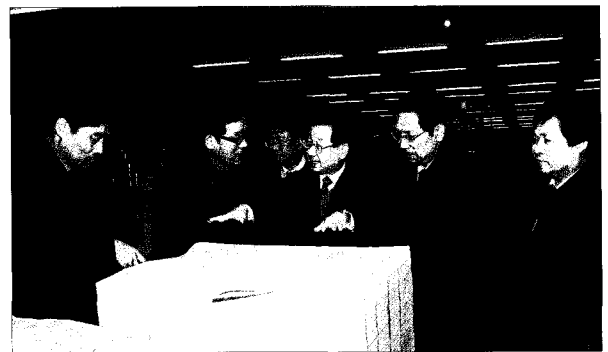
박선규 문화부 차관과 출판인쇄단체장 간담회

“출판인쇄 발전 위해 정부와 업계 공동노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의 출판인쇄업계 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파주출판단지 내의 한 식당 노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선규 차관과 나기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재단 이사장, 윤희두 출판진흥재단 이사장, 이창연 서점연합회 회장, 김종영 출판조합 이사장, 한철희 출판인회의 회장, 김정선 보진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선규 차관은 “국민독서 증진을 위한 대책과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파주출판도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훌륭한 문화단지라면서 가족들이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중국을 베이징 올림픽 당시 활자를 중심으로 개막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인쇄를 성장산업으로 보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지원이 미약한 만큼 인쇄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선 보진재사장(가운데)이 박선규 차관(오른쪽 두번째)에게 인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판계는 “납본제도 개선과 앞으로 출범하게 되는 출판진흥기구가 명실상부한 진흥기구가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점계는 “단일 언어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박선규 차관은 파주출판도시를 돌아보고 보진재와 열화당, 활판공방 등을 방문했다. 보진재에서 박 차관은 100년이 넘는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인쇄가 이렇게 중요한 만큼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